

보도시점 2024. 6. 14.(금) 10:00 / 배포 2024. 6. 14.(금) 08:3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 한기정 위원장, ‘독점화, 해자구축 및 고착화 전략에 대한 사건처리 경험 등에 대해 발표 -

<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 일 시 : 2024. 6. 10.(월) ~ 14.(금) 09:00~18:00
- 장 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
- 주 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 주 제 :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6월 10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하였다.

6월 10일(월)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OECD 경쟁위원회 주요 일정
- <붙임 2> OECD 경쟁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붙임 3> OECD 경쟁위원회 현장 사진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양충식 (044-200-4315)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0-4326)
			사무관	서영진 (044-200-4320)
			사무관	신가주 (044-200-4319)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최장관 (044-200-4147)
		담당자	사무관	박가연 (044-200-4744)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OECD 경쟁위원회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의제
6.10.(월)	10:00~10:05	논의 의제 소개
	10:05~10:10	지난 논의 내용 요약
	10:10~10:25	튀니지 은행업 시장 연구 관련 사무국 발표
	10:25~10:45	경쟁 평가 관련 OECD 권고문 이행 논의
	10:45~11:00	Super League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
	11:10~11:25	Zimmer/Biomet 기업결합 사후평가 보고
	11:25~12:20	통신 분야 오픈 인터넷 및 인프라 투자
	12:20~12:30	향후 논의 의제
	14:30~17:30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17:30~18:00	경쟁위 및 산하 작업반 임무 갱신 논의
6.11.(화)	09:45~09:55	지난 논의 내용 요약
	09:55~12:45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14:45~15:15	경쟁법 집행의 환경 탐색
	15:15~16:00	2005년 기업결합 권고문 개정 논의
	16:00~16:45	2019년 경성담합 권고문의 이행 관련 사무국 보고
	16:45~17:00	향후 논의 의제
	17:00~17:30	경쟁위 및 산하 작업반 임무 갱신 논의
6.12.(수)	17:45~19:45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회의 (별도 일정)
	08:30~09:30	ICN 이사회 회의 (별도 일정)
	10:00~10:05	논의 의제 소개
	10:05~10:10	지난 논의 내용 요약
	10:10~10:20	작업반 의장 보고
	10:20~13:00	AI, 데이터와 경쟁
	14:30~15:00	의장단 선출 방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
	15:00~15:30	BIAC 내부 구조와 업무방식 발표
6.13.(목)	15:30~18:00	친경쟁적 산업정책
	09:00~09:15	ICN 및 UNCTAD 조정관 보고
	09:15~12:30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12:30~13:00	향후 논의 의제
6.14.(금)	15:00~17:30	불가리아 가입심사
	09:30~11:00	경쟁정책 연례보고서 발표
	11:00~11:30	경쟁위 및 산하 작업반 임무 갱신 논의
	11:30~12:00	경쟁위원회 국제관계전략 논의
	13:15~16:15	루마니아 가입심사
	16:15~17:30	코스타리아 가입 후 모니터링 결과 검토
	17:30~18:00	사무국 내 경쟁분과 활동 보고

[6.10.(월) –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6월 10일(월) 오전에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제2작업반 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 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면허 및 진입 규제는, 과도할 경우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면허와 진입 규제가 경쟁, 나아가 생산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호주 대표단은 최근 근로자의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s)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 종사자 및 법률 서비스 분야 경쟁상황을 개선하는 사례 연구 내용을 설명하였다. 프랑스 대표단은 2015년 규제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여러 직업군에 존재하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프랑스 경쟁당국은 동 법률에 따라 법무 서비스 분야 규제를 개선 권고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11.(화) –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6월 11일(화) 오전에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현대 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상호호환성을 저해하여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거나, 잠재적인 경쟁사를 초기에 인수하는 전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호주 대표단은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 호주 경쟁당국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해자 구축 및 고착화의 형태와 관련이 깊다고 언급하였다. 유럽연합(EU) 대표단에서는 핵심적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인접한 보완재 시장에서의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적 기업 간 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행위 등에 경쟁당국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디지털 기업의 독점화 전략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12.(수) -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6월 12일(수) 오전에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가치사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양상, 핵심 생산요소와 관련된 경쟁적 우려 사항,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소수 거대 기업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될 수 있는 특징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GPU 등 주요 생산요소와 관련하여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경쟁당국은 인공지능 산업 분야 시장 연구, 사전규제, 경쟁법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 대표단은 경쟁소비자청(CMA)에서 최근에 발간한 파운데이션 모형 관련 시장 연구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양한 모형의 개발과 이에 대한 소비자·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거래,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대표단은 경쟁당국에서 현재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생산요소와 관련한 경쟁적 우려 사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 인공지능 관련 기업 간 제휴가 초래할 수 있는 반경쟁적 효과 등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12.(수) – 친경쟁적 산업정책]

6월 12일(수) 오후에 개최된 원탁회의에서는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국 대표단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산업정책을 국내 산업부문의 성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개입으로 정의하였다. 산업정책은 경쟁 원리에 따라 산업을 친경쟁적으로 개편하여 경쟁을 창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한편, 때로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왜곡할 수도 있다. 경쟁당국은 산업 의회와 소관 부처의 산업정책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경쟁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자문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서는 ‘역내 단일 시장’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국가별 보조금이 유럽연합 시장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은 모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수단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효율적 산업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일본 공정 취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6.13.(목) –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6월 13일(목) 오전에 개최된 원탁회의에서는 사생활 보호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두 정책을 집행할 때의 고려사항 및 서로 다른 정책 목표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일부 경쟁당국에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경쟁법적 측면에서 고려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과 프라이버시 정책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과 데이터보호당국인 정보위원회(ICO) 등 디지털 시장의 규제기관들이 협력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규제 정책 관련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특히 CMA와 ICO는 2023년 온라인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 등의 현안에 대해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에서는 Meta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결합한 행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붙임 3

OECD 경쟁위원회 현장 사진

